

디자인계열 대학입학생의 실기능력 유무에 따른 조형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arning Efficiency of the Plastic Arts Expression
in College of Design on the Students Preeducation

이현국(Lee, Hun-Kook) · 윤민희(Yun, Min-Hie)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Kyung Hee University)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2F020014)

1. 연구목적

- 1-1 연구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본론

- 2-1 국내외 예술·디자인대학의 입시제도 현황
- 2-2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기초 실기 작업의 연구 및 분석

3. 결론

- 3-1 설문지 조사 및 기초 실기 작업 분석 결과 및 제언
- 3-2 대학의 새로운 조형교육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디자인계열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작업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작업추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입학 전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조형교육의 방향성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동시에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계열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 학과마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대학이 같은 비율로 입시전형 하는 획일화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문제를 개선하여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학습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새로운 교육지표 및 디자인 교육기반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초 조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교육에 적절한 적용과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대학의 디자인 실기교육에 적용시킬 교육과정 및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the plastic arts education, first by examining a variety of cases in the admission polic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students' preeducation; and second, by analyzing the work process of students who were admitted. The flexible admission policy should be provided to select both groups of students: students with preeducation and students without preeducation. It is requested that the uniform selectional standard adopted by most universities should be changed into the diverse standards that can evaluate different educational back ground of students.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university professors to prepare for the new educational foundation and direction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eaching. This study also aims to suggest the curriculum and methods of the design education to provide the effective teaching of plastic arts and there by develop the better methods of education in this area.

(Keyword)

plastic arts, preeducation, education, educational found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디자인계열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작업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작업추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입학 전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조형 교육의 방향성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디자인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21세기의 디자인의 시대를 맞이하여 좋은 디자인 교육의 정립을 위한 교육 토대가 되는 기초 교육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의 다양한 예술의 표현 경향 속에서 조형교육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의 조형교육이 전반적으로 사물의 사실적인 재현(representation)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면, 현대의 조형교육(造形教育)은 작가의 주관적 창의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특히 서양미술의 역사 속에서 고대 플라톤(Platon) 이래 시각예술, 즉 미술에 대한 입장은 사유(thinking)를 내포하지 않은 단순한 감각의 모방(imitation)적인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측면에서 저급한 단계로 표현되었다. 시각(vision), 즉 눈의 예술은 일반적으로 재현적 예술로써 인간의 내면적 정신(mind)과 의식(consciousness)의 산물이 아닌, 육체적 감각에 의한 예술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각은 예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에 바탕을 둔 작업이라는 시각보다는 모방적, 재현적 시각에 바탕을 둔 예술모방론 또는 예술재현론이다. 고대이래 거의 18세기까지 이러한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18-19세기를 거치면서 예술에 대한 시각은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표현을 중시하는 예술표현론이 지배적이다. 미술이 단순한 외적 형상의 모방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포한 인간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예술활동은 삶의 직접적 표현이며, 감각과 개념, 지각과 사고, 구체성과 추상성, 주체와 대상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인 통합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감각과 이성이 결합된 철학적 사고에 바탕에 둔 장(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적 표현이 단순한 외적, 감각적 재현이 아니라, 사유를 내포한 정신의 영역이라는 형태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조형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¹⁾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手)작업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재현 능력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 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기초 조형교육도 재현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조형 능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형관에 발맞추어 예술·디자인대학의 조형교육 및 입시전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2-3년 간 국내의 많은 예체능대학들의 입학전형에 학과 성적(수능성적)과 실기성적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거나 실기능력을 측정하지 않고 수능 점수만으로 전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동시에 입학시켜 하나의 통합된 교과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대학들도 다수이다. 이러한 추세는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디자인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 예술·디자인대학 입시전형의 현황은 시각예술의 표현이 오랜 기간의 기술적인 테크닉만의 재현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시각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입시전형은 과거의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비하여 보다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전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학습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새로운 교육지표 및 디자인 교육기반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초 조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교육에 적절한 적용과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대학의 디자인 실기교육에 적용시킬 교육과정 및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디자인 계열대학 1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전 실기 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계열대학에 입학한 2000학년도, 2001학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실기교육을 받은 학생들(A군)과 받지 않은 학생들(B군)을 2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지 조사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²⁾

실기 및 비실기 전형학생들의 기초실기 과정의 작업(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을 무기명으로 예술·디자인계열 담당교수 10명에게 정량화 한 조형적 분석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다. 위의 두 종류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새로운 조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연구대상

디자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2) 연구범위

디자인계열 대학 1학년 기초 조형교육과정(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작업에 조형적 분석에 바탕을 둔 교수들의 설문지 조사 및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지 조사

① 조형적 분석 방법연구

② 기초 조형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교육방법과 교육현황을 연구·분석

③ 새로운 교육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설문지 조사를 중심으로 통계조사 방법 및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① 2종류의 설문지 작성(학생 및 교수 대상용)

② 설문 조사실시

③ 자료처리(통계처리 방법)

2) 디자인 계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하여 실기교육을 전문기관이나 사설교육기관에서 받고 디자인계열 대학에 실기전형을 한 학생들을 A군으로 칭하고 전혀 받지 않고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B군으로 정의한다. 이하의 문장에서는 실기, 비실기로 생략하여 칭하거나 또는 A군, B군 으로 칭한다.

1) 루돌프 아르하임, <<시각적 사고>>, 이화문고, 1981, pp. 435-451.

④ 분석 및 제안

4) 연구기간 : 2001. 9. 1 - 2002. 8. 31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기초 조형교육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기초 조형에서 형태, 색채, 공간감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기초 조형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교육방법과 교육현황을 연구·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2. 본론

2-1 국내외 예술·디자인대학의 입시제도 현황

현행 국내대학 입학 시험제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 내신성적, 면접고사 등을 전형자료로 하고, 예체능계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를 부과하는 방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 계열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학과 성적(수능성적)과 실기성적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거나 실기능력을 보지 않고 수능 점수만으로 전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³⁾ 또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동시에 입학시켜 하나의 통합된 교과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대학들도 다수이다.⁴⁾

이러한 추세는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디자인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⁵⁾ 2년제 대학은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대학이 과반수에⁶⁾ 달하고 있으나 2000-2002학년도 입시전형분석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실기전형을 실시하고 있다.⁷⁾

거의 대부분의 미술계열과 디자인 계열의 실기 능력 평가를 위해서 석고 소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된다. 석고 소묘(또는 연필소묘, 석고상 중심의 정물소묘 등)를 실시하

지 않는 대학도 인물묘사나 정밀묘사로써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미대지원자들은 화실이나 미술학원 등의 과외 수업으로 공통실기과목인 석고 태생을 숙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석고상의 거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서양미술교육에 많이 사용되어왔던 아그리파, 아리아스, 줄리앙, 비너스, 청년 부르터스, 카라카라 등과 같은 그리스·로마의 신화적인 인물이나 황제, 장군들의 흉상들이다.

미술대학의 전공에 따라 서양화는 정물 수채화, 동양화는 정물수묵채색, 조소과는 조소석고상, 공예과·응용미술과 등은 구성을 실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 택일하거나 정밀묘사가 첨가되기도 한다. 특히 디자인 계열대학에서는 석고 소묘와 함께 기초디자인, 기초 색채디자인, 발상과 표현,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구성>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구성 실기시험은 주제의 전개 및 구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색채조화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3-4시간 내에 기본적인 구도, 면 분할, 정확한 채색 등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됨으로, 수험생들은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정형화, 획일화 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미대입시제도의 실기능력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미술관련자들도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인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 기계화된 학생들의 기술적인 재현 능력을 평가할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석고 소묘를 중심으로 회화영역에 치중된 평면적 표현은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이 회화교육에 치우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의 예술·디자인계열의 실기전형을 미국, 프랑스, 독일의 입시전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석고소묘 위주의 획일화된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표현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시간의 평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작업을 준비한 포트폴리오 제작과 함께 전공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본인의 작업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미술대학 실기시험제도는 많은 미망생을 단시간의 평가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대학이 정형화된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객관성>, <편리함>을 이유로 사실묘사의 기능위주의 평가에 바탕을 둔 입시제도는 단순히 미술대학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정서함양 및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맹목적인 미의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실기시험과목을 다양화하여 단순히 재현적인 묘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행 입시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재료를 사용하는 현재의 실기평가제도에서도 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지향하여 학생들의 주관적인 작품의도나 다양한 조형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기과목은 현시점에서 볼 때 대학마다 창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실기고사과목의 개발이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가 아니라 균형 있는 입시 미술 평가전형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암기식 위주의 테크닉만을 강조하는

3) 회화, 조소의 영역의 입시는 모두 실기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면, 디자인계열 대학에서 비실기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는 실기전형과 비실기전형을 동시에 행하여 학생들을 모집한다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산업디자인학과는 비실기전형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과이다.

4) 예를 들면 경희대, 국민대, 과학기술대, 광주여대, 동명정보대, 중앙대, 서울산업대, 인제대, 청운대, 한려대 등의 디자인 관련학과에서의 입시전형에서 실기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수능과 면접으로 입학전형을 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대학은 가군(비실기)과 다군(실기전형)으로 나누어 실기능력이 있는 학생과 실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동시에 전형하고 있다. 현재 4년제 대학으로 과학기술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는 비실기 전형만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선대대학들의 입시전형에 발맞추어 많은 미술대학 또는 조형대학들도 이러한 입시전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다.

5)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디자인의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1996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디자인대학원이다. 석사과정의 전형은 전공불문하고 국내의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지원자는 석사과정 2년 4학기제로 수업하며, 비전공자는 3년 6학기제 수업을 하며 1년 동안 디자인 기초과정을 수업한다.

6) 위 자료는 일반적인 통계에 바탕을 두었으며, 탄력적으로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과에서는 비실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추세이다.

7) 2002년도 주요 예술·디자인대학 입시전형 참고(부록에 수록 됨)

입시미술의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켜 대학에서 창의적인 조형교육에 바탕을 둔 실기교육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2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기초실기 작업의 연구 및 분석

본 연구는 입학 전 실기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계열 대학에 입학한 2000학년도, 2001학년도 1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입학 전 받은 학생들(A군)과 받지 않은 학생들(B군)을 2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지 조사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학생들의 기초실기 과정의 작업(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에 무기명으로 예술·디자인계열 담당교수 10명에게 정량화 한 조형적 분석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연구. 분석하여 새로운 조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⁸⁾

본 연구는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 신입생의 1학년의 기초실기 교육과정에서의 심리적 분석 및 입학전의 과외의 미술교육 등에 대한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실기전형 및 비실기 전형의 비율은 90:46이다.⁹⁾

① 실기전형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결과(90명)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에 입학하기 위하여 1년 미만으로 실기교습을 받은 사람이 전체의 3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1-2년 미만이 27%였다. 실기 교육을 받은 기관은 미술학원이 9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사설화실이 5%였다. 또한 실기 교육과정에 37%의 학생들이 텃생을, 23%의 학생들이 구성작업을 수강하였다.

실기 교습은 일주일에 5회 수강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주3회가 9%를 차지하였다. 경희대학교에 지원하려고 결심한 시기는 입시기간이 6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후반기가 14%였다. 입학 전 실기교육을 받은 것이 입학 후 기초 실기 수업을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3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가 26%이었으면 특히 1학년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드로잉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느 분야를 전공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시각 디자인 전공희망자가 3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27%), 산업디자인(23%) 순이다. 기초 실기과목의 이수과정에서 가장 흥미롭게 수강한 과목은 입체표현이 31%를 차지하였고, 드로잉(26%), 색채표현(24%), 평면디자인(11%), 컴퓨터 드로잉(8%)으로 나타났다.

실기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의 실기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30%이상의 학생은 만족하며 보통이라고 답

한 학생도 41%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실기전형의 학생들의 71%가 보통이상의 점수(B)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기성적에 비하여 이론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만족함 : 19%, 보통 40%)

단일전공 및 복수전공의 여부에 대해서는 43%학생들이 부전공을 희망했으며, 복수전공을 희망한 학생들은 28%이다. 29%의 학생들은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66%이상의 학생들이 입학전의 전공선택이 1년 동안의 기초과목 이수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입학전의 실기교육이 대학의 기초 실기 교과과정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62%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실적인 묘사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38%의 학생들이 답했으나, 사설학원 교육이 너무 반복적이어서 창의력 발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46%의 학생들이 답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기 전형 및 비실기 전형한 학생들을 하나의 동일한 교과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35%의 학생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② 비실기 전형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결과(46명)

비실기 전형 학생들이 디자인계열 대학을 지원하려고 결정한 시기는 실기전형 학생들에 비하여 30%의 학생들이 명확한 시기를 답하지 않고 있으며, 20%의 학생들이 수능시험 직후에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대학 및 학과를 선택한 시점은 수능시험 발표직후가 가장 많았다. 입학 전 실기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입학 후 실기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가 44%를 차지했으며, 33%의 학생들이 그럭저럭 수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현상은 11%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호소했다면, 13%의 학생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실기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사실적인 재현능력의 어려움(61%)을 언급하였다. 반면에 아이디어 발상과 같은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어려움은 7%에 불과하였다. 즉 비실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낀 과목은 드로잉이었으며, 그 외의 과목은 실기 및 비실기 학생간의 큰 격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비실기 전형학생들은 테크닉적인 재현능력, 즉 묘사능력에 어려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학부 진학 후 과외(사설학원, 개인교습)로 교습을 받은 학생은 20%에 불과했으며, 그중 80%의 학생들은 1개월 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전형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시각디자인전공이었다면, 비실기 전형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전공(33%) 산업디자인(22%), 시각디자인(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33%가 색채표현을 가장 흥미롭게 수강하였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드로잉의 묘사적인 면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었지만, 20%의 학생들이 색채표현 다음으로 흥미를 가진 과목이었다. 비실기 전형 학생들은 묘사능력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했지만 37%의 학생들이 1년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24%의 학생들은 1년 6개월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61%이상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은 1년 6개월 내에는 디자인계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1학년 과정의 실기 및

8) 본 설문지조사지는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9) 설문조사에 참석한 학생은 140명이나 설문 회수 학생은 136명이다. 실기전형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 비율은 90 : 46명이다. 그러나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10-20%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외로 입시 미술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학생들을 본 설문지 조사에서는 실기전형학생으로 간주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론과목의 성적을 비교할 때 비실기 전형학생들이 이론교과목의 성적이 우위에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전공선택에 있어서는 실기전형 학생들과 같이 40%의 학생들이 단일 전공을 선택했다. 입학전의 전공 선택의 희망이 1년 과정의 기초과목 이수과정에서 전공을 선택하려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질문에는 '전공선택이 바뀌지 않았다'가 7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전공 선택이 바뀌었다'는 20%를 차지하였다.

대학 입학 전에 실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대학 기초 실기교과과정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느냐는 질문에는 '약간의 지장이 있었다'가 72%로 나타났다.

② 학생들의 조형작업을 바탕으로 한 교수들의 조형적 분석에 대한 연구분석결과

조사대상 : 디자인대학 실기교수 10인

조사방법 : 실기와 비실기 학생들의 작업 각각 10명의 학생들의 작업을 무기명으로 포트폴리오로 제작하여, 1) 테크니적인 재현 능력 2) 창의적인 표현능력 3) 색채 조화 감각 4) 공간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적인 분석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조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 오차 : 본 연구는 실기교수의 개인적인 평가 기준이나 취향에 따라 오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하나, 미적 취향의 보편성의 시각에서 이러한 방법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③ 지도 교수들의 조형적 평가를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 분석¹⁰⁾

설문지 조사를 위하여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의 디자인계열 학생들의 사례를 표본화하여 4개 교과목(드로잉, 기초디자인, 컴퓨터 드로잉, 입체표현)에서 각각 실기전형학생들의 작업 10점, 비실기 전형 학생 10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교수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수들의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학습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교수들에게 실시한 결과 실기 능력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능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과목은 1학년 1학기의 드로잉의 표현에 있다고 한다.

드로잉 교육을 받은 후의 2학기 과정의 교과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실기 및 비실기 학생들의 수학 능력차이가 드로잉과목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드로잉에서는 비실기 전형 학생들이 훨씬 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조형적 결과가 뛰어난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1학기말 또는 2학년 1학기부터는 조형적 작업의 분석을 통해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실기작업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은 드로잉의 재현적 능력이 부족하며, 평면디자인과 입체디자인에서는 실기 전형학생들과 큰 표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특히 드로잉의 표현

에 있어서는 비실기 전형 학생들이 실기전형 학생들에 비하여 표현성에 있어서 약간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계열대학의 새로운 입시전형의 제도 및 교육과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3-1. 설문지 조사 및 기초 실기 작업 분석 결과 및 제언

디자인계열 대학 입학 전 실기 및 비실기 전형제도가 대학의 기초실기 교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분석하였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학생들을 양분하여 연구하는 본 연구는 음악과는 다른 디자인 교육의 특성상 입시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실기 능력의 편차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규명하기에 힘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흑백의 논리로 실기 및 비실기에 바탕을 둔 본 연구는 약간의 오차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작업에 대한 조형적 분석평가는 평가방법, 평가교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가치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미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가능한 객관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조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근본 취지는 비실기 전형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상호비교 및 분석, 새로운 제언 등을 위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체계화 된 연구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어려움은, 제한된 인원의 연구대상,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의 위험성 등으로 10%의 오차 범위를 전제한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에 따른 디자인 대학 기초실기 교육과정에 초래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높은 학생이 컴퓨터를 포함한 학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초 조형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실기교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기교사를 실시한 학생과 비실기 학생의 경우,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미술 작업 시 실기시험을 준비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여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¹⁾

비실기 전형대학인 인덕대학 산업공예디자인과 조병학 교수와의 대담은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특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비실기 전형의 경우 미술대학의 인문계화의 우려와 함께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확립적으로 예술·디자인계열 대학에서 선택하기보다는 학과의 특성,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군에 따라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현 입시전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¹²⁾

10) 학생들의 조형작업을 중심으로 하여 교수들에게 실시한 설문지 조사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11) 미술대학 실기시험 有? 無?(2년제 대학위주), <<미대러 가는 길>>, 2001. 9., p. 111.

오늘날 예술·디자인계열 대학의 실기 작업 평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시하고 있다. 미술대학 입학시험은 그동안 수험생이 입학 후 어느 정도의 잠재력의 발휘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솜씨를 숙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에 달려있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미술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대 입시에 고등학교 미술교과목이라는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의 정상적인 미술교육만으로 미대입시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술계 지방생들은 과중한 학업과 40%이상을 실기 점수로 배점하는 입학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미술대학 지원자들은 학교 이외의 장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술학원이나 화실, 또는 개인교습을 위하여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설문지 조사결과를 볼 때 미술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미술교육보다는 미술계 전문학원 교육을 통하여 입시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술대학 합격자들

은 대부분 전문 입시 미술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 출신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학원수강료를 부담할 수 있는 중류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자녀들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미술학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 소도시, 농촌지역 출신의 학생들은 실기전형으로 디자인대학에 입학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인재양성과 지역에 따른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요소이다.

3-2. 새로운 대학의 조형교육에 대한 제언

현대의 디자인계열의 입시전형에 있어서 실기전형 및 비실기 전형에 대한 장·단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시행 단계인 현시점에서 극단적인 흑백의 논리로 현 제도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에 바탕을 둔 조형교육을 위해서는 현대 조형교육의 고전으로 꼽히는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 : 1919-1933) 학교의 교육이념이 현대의 디자인 교육에 개인적이어야 할 것이다. 바우하우스학교의 설립자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는 회화, 조각, 공예,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 등을 건축의 긴밀한 구성요소로서 재통일하여 일련의 '총체적 예술(Gesamtkunstwerk)'을 시도하려 하였다. 즉 일련의 예술과 기술의 종합을 시도하려는데 이념목적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형 이념을 바탕으로 예비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연 재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학습시키고, 전문과정에서는 형태교육과 공방실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과 함께 다양한 조형예술의 영역과의 밀접한 연계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은 현대 디자인 교육과정의 재 학제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확산과 함께 디자인 교육도 과거의 형태, 재질에 대한 연구 등의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표현 매체와의 접목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의 많은 부분은 드로잉 및 기초디자인의 아이디어 발상법, 입체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재질의 사용, 그리고 색채에 대한 조화감을 배울 수 있다. 기초 구성요소는 드로잉작업으로 자연에 대한 연구 및 자연물의 정밀묘사를 연구하며, 동시에 옛 거장들의 작품연구가 필요하다. 거장들의 작품연구는 작품의 구성원리 및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조형의 원리를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조형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동시에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수업하는 드로잉 교과목은 학생들의 실기 능력 유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장 부족한 묘사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단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상호조화 및 절충에 바

12) "Q : 실기고사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미술대학이 인문계화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보다는 성적이 우선시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물론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실기력이 높은 학생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 수업이 끝난 뒤 2학년을 살펴보면 실기 수준이 거의 같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전 실기고사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Q : 실기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모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술대학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은 실기력을 갖춘 수험생에게 입학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 :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특기자 형식으로 실기대회 수상자나 동일계 전형(디자인이나 회화 부분 전공자) 등의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기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실기대회를 통해 실력을 발휘하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미술대학 실기시험 有? 無?(2년제 대학위주), <<미대로 가는 길>>, 2001. 9., p. 111.

실기전형대학인 계원조형예술대학의 출판디자인과 이기성교수는 실기와 비실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Q : 출판디자인과는 실기시험과 내신, 수능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실기시험이 학교의 수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요? A :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다가 몇 년 전부터 실기시험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만으로 들어온 학생의 경우, 기획력은 좋은 반면에 실기력이 떨어지고 실기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실기 컨셉을 구체화시키는데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 미술을 전혀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기초 1주일 동안 드로잉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직접 교수들이 처음부터 지도할 수 있어서 학생의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실기를 하고 온 학생들과 전혀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의 차이점은?"

A : 실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온 학생은 실기를 하고 온 학생들보다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기를 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은 일단 성실하며 과제도 적극적으로 잘 해옵니다. 자기 스스로 실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므로 2학기가 되면 실기를 많이 하고 온 학생들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아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기를 하고 온 학생의 경우 가끔은 학원에서 배워온 것들에 대한 틀을 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힘들기도 합니다." : 미술대학 실기시험 有? 無?(2년제 대학위주), <<미대로 가는 길>>, 2001. 9., p. 113.

탕을 둔 특성화 교육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조형 교육의 실시와 함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을 위한 묘사능력(드로잉)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화된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다.

2) 평면디자인 및 입체디자인의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재료연습, 기법 습득, 제작, 감상과 비평의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 다음은 제작, 기법 습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능력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드로잉에 비하여 입체구성은 상대적으로 재현능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흥미로운 현상은 입체 구성학습의 재료, 기법, 제작, 학습과 비평이 전공기초에 영향을 많은 영향을 줌과 동시에 공예 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형성이 강조된 입체 구성은 기초 조형으로서 미술 교육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입체 구성은 순수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의한 형태의 창조이며 이 형태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컴퓨터 드로잉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적인 재현 능력에 관한 교육 강화와 함께 기초디자인의 조형교육,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기초 교과목의 상호연관성, 각 전공의 퓨전화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여, 실기교육과 이론 교과목이 상호 연관된 교육과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론 교과목교육도 미술사, 디자인 및 공예이론, 공예예술의 상호 접목을 시도한 새로운 조형예술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 이론 및 실기교육의 조화에 바탕을 둔 디자인 교육과 함께 스튜디오 리서치와 같은 실기와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론 형식의 수업 등 다양한 전공과정의 연계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 기초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론과목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디자인 계열대학은 이론교과목(디자인론, 미술사 등)을 획일적으로 대단위 강좌로 개설함으로써 디자인 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실기와 이론의 조화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기와 이론교육이 상호 연계된 소규모의 토론회 세미나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선진 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전공 기초교육과정은 제작 결과보다 제작과정을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각경험과 감각 훈련 등의 미적 체험과 더불어 조형실습과 시각전달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계열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 학과마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대학이 같은 비율로 입시전형 하는 획일화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문제를 개선하여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한 전공 기초교육과정은 제작 결과보다 제작과정을 중시하며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과

정을 통해서 시각경험과 감각 훈련 등의 미적 체험과 더불어 조형실습과 시각전달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계열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 학과마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대학이 같은 비율로 입시전형 하는 획일화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문제를 개선하여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학습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새로운 교육지표 및 디자인 교육기반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초 조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교육에 적절한 적용과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대학의 디자인 실기교육에 적용시킬 교육과정 및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1984.
- 김정, <<미술 평가의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창지사, 1996.
- 김정희, <<미술과 수행중심평가>>, 학문출판주식회사, 2001.
-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미진출판사, 1989.
-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문화사, 1995.
- 조열·김지현, <<형태의 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1999.
- 루돌프 아른하임(김정오 옮김),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루돌프 아른하임(김재은 옮김), <<예술심리학(Toward a psychology of art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루돌프 아른하임(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Art and visual perception)>>, 미진사, 1996.
- 수잔 K. 랭거(이승훈 옮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5.
- 다케 우치도시오(안영길 외 옮김),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1989.
- 한스 마이어(김정 역), <<독일의 미술교육>>, 교육과학사, 2000.
- Arnheim Rudolf., *New Essays on the Psychology 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1986.
- Vitale Elodie., *Le Bauhaus de Weimar 1919-1925*, Pierre Mardaga, 1989.
- 강정현, <<칸딘스키가 바우하우스의 조형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김영숙, <<현행 미술과 대학입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백인순,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신경선,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수업의 평가 방법 사례 연구 : 감상 능력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황창연, <<교육사회학적 측면으로 본 교과내용편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미대로 가는 길, 1999-2001.